

報兩世劬勞之恩。賢宰彈力。普開千佛莊嚴之海。神僧協謀。大千世界瑚峰建標。第一山川。蓮胎爲案。七寶香花。光映脫解。神殿八法功水沒動。文武王巖。玉女奉供於九天。金僊現聖於三界。樓臺是飾。神磬琉璃之炫煌。砌所有榮。玻璃瑪瑙之照耀。由來數千載。爲栴檀因緣。屹立數百年。與國家終始。法雲蔭而火宅晨冷。慧日明而重昏夜光。趙巡相之供糧。引金繩而開覺路。僉洞員之修稷。浮寶茂而替慈航。短於長棧。殿構宏傑。頰苔翠蘇。石勢參差。今茲歲月之滋久。其奈風雨之漂撓珠樓玉殿。埋沒榛莽之場。鶴架虹杠。浪籍狐兔之跡。經營迂濶。下撥眩力之軛。捨施團圓庶復龍宮之制。召匠募棟。斯草創於新規。依採畫蘆仍捨据於舊貫。只爲可惜前功惟望無廢。後觀法鳥演音。益深燕賀。靈鷲眼。允吓翬飛用繫斯干之詩。斧彼鉅彼。請中大壯之頌。輪焉旻焉並學雙虹。齊歌六偉

兒郎偉拋樑東嵯峨高出半天中山色微分孤塔外日光先射小菴東
兒郎偉拋樑西瑞靄玲瓏碧瓦齊禮拜金僊香滿袖夕陽移在影池西
兒郎偉拋樑南千人芙蓉隱翠風絕頂連天根托地龍盤虎踞鎮維南
兒郎偉拋樑北維嶽巖巖多石色離離星斗巖中佳祝壽山僧時拱北
兒郎偉拋樑上金色玉毫光萬丈苔顏依舊雲根活手把香花供養上
兒郎偉拋樑下貝葉轉經鎮日課請看法焚修地時增清風吹榻下
抑願上樑之後佛日生輝道場增重琅苑突於方天邊神衆慈護金剛倒卓於雲外仙侶獻供談經證看之聖土藏焉修焉考榮尋眞之願人賦也與也法輪常轉香海求清
聖上即祚二十八年辛卯四月佛誕日朝鮮國嶺左慶州府東海上九芝山居士孫永耆述

[註] 이懸板은 지난 八月 石窟庵壽光殿附近에서 우연히 發見되었는데 首尾가 斷切되어 있어 『...』만이 判讀된다. 本誌二卷八號(石窟庵 特輯)에는 이 記文을 掲載하지 않았던 바 이번 原文과 對校할 수 있었음은 多幸이었다. (이 記文은 小野玄妙「極東三大藝術」에 실려 있다) 이懸板의 出現으로 石窟木造架構 그 自體의 重修가 前世紀末에 있었던 것이 確認되었다.

明成皇后의 親筆 「一片丹忠」(四字)

李 謙 魯

지난 一月下旬頃 어는 날이었다. 書舖한 구석 卓子 위에 어저러히 쌓아 두었던 크고 작은 書帖과 神道碑銘, 墓碣銘帖 등을 整理하던 中 近來에는 볼 수 없는 이름모를 高級緋緞으로 鄭重하게 裝幀된 筆帖에서 뜻밖에도 明星皇后的 親筆인 一片丹忠 四字를 發見하였다. 비록 名筆은 못될망정 凡常치 않은 筆致로 古松一枝와 같이 筆力이 遒勁한 點은 眼下無人格으로 媿父인 大院君과 對抗하여 온갖 權謀術數을 恣行하며 國權爭奪戰을 演出하던 閔妃女傑로서의 그의 剛愎 性格이 如實히 나타나 있는 듯 하였다. 그리고 이 一片丹忠 四字는 高宗 二十二年 乙酉(一八八五) 十二月 二十一日에 三本을 親書하여 金圭復, 金圭錫, 黃允明 세 사람에게 各一本式을 授與하였는데 그 動機와 始末에 對하여는 親受者의 한 사람인 金圭復이 書한 跋文에 昭詳히 記錄되어 있음으로 省略하며 粧帖의 크기는 長이 三七·五cm 橫이 二八·五cm 두께가 二cm 程度이며 글字의 크기는 各各 다음과 같다.

一字 左에서 右까지 二二·五cm

片字 長이 一七·五cm 가로 一五cm

丹字 長이 一九·五cm 가로 一五cm

忠字 長이 二二cm 가로 一五cm

끝으로 蛇尾을 부친다면 明星皇后의 筆蹟도 鑑賞할만 하거니와 本粧帖에 記載된 金圭復의 跋文은 우리나라 最近世史研究에 貴重한 史料가 될 것으로 記錄으로 長이 남겨 두기 爲하여 投稿하는 바이다.

(梨大博物館所藏)

跋 文

賤臣金圭復, 年十八, 猥蒙侍中之職, 伊來三十餘年, 厚受國恩, 階至一

一片丹忠

座盡濕，臣與圭錫，侍坐于泥塗之中，日已昏暮，賊無退意，事在危急之地，衝冒劍戟，屢駕還御于重熙堂，護安東朝，而未知 坤聖行在，萬萬罔

第四卷 第九號 通卷三十八號

品，如山若海，而未報涓埃之萬一矣，逮我聖上十九年壬午六月初九日癸亥，都下諸軍（訓禁御三營合爲壯翼營故曰諸軍）猝起爲變，先殺倉吏（稱以作奸料米）且劫破宰臣第宅及公館（時日本公館在天然亭）閻家，夕聚于東別營，擅索軍器，蜂擁豕突，喊殺一夜，勢如烈火，聖諭非止一再，而愈肆猖獗，翌日平明，自教化門，直犯宮闕，而戒嚴疎虞，無一人拒之者，外內遑遑，黃允明柳載賢與諸僚，陪扈 東宮，從躍金門出，臣與金圭錫，侍御駕，至後苑（內人處所）而避之，須臾，亂軍遍入宮掖，迫脅君父，狀殺扈從宰輔，（閱謙鎬金輔鉉）綱常頹矣，慘禍極矣，是日，雨下如注，御

措之中，賊又一擁而入，直上殿陛，長鎗短戟，犯如束針，殿上窓壁，隨破隨裂，愈肆愈急，當時爲臣民者孰無一死之心乎，臣圭復不勝憤激，當先罵賊，賊乃倒拖牽出，一場噁脅，刀戟齊發，頭碎喉斷，血流淋漓，賊徒認以己死棄而去之，適有掖隸鄭錫俊者竊負而歸，甦而復死者屢矣，雖一滴之水，下喉輒橫出，如是不能飲者七八日自不合休，而同時金圭錫亦被傷焉，粵七月十一日乙未，天朝命將靖難，（提督吳長慶率各部將領四員出來）捕獲亂軍，殲魁舍從，護衛我 主上于正宮，奉迎我 坤聖于忠州，（是時始知 坤聖在干忠州長湖院）使此東土臣民，復覩天日，何其盛哉，臣圭復病枕昏昏，未能趨進，越三月創甫痊，登輝拜舞，莫非聖恩，攸暨敢不欽頌，後三年甲申，兇徒玉均、泳孝、光範，載弼醞釀禍亂，十月十七日戊子夜，潛入宮禁，訛動變起，誣告賊入，劫駕播越于景祐宮，臣圭復與官僚七八人扈從，而喘喘忙步，纔入宮門一聲喇響，日兵已四圍，水洩不通，尙未知從，何變作，（兇徒尙誣以外面賊起）伏侍各殿宮終夜蒼黃矣，日未明，諸賊誘殺宰輔六，（閱台鎬趙寬夏閱泳穆尹泰駿韓圭稷李祖淵）近臣（柳載賢）又欲劫遷御駕，迨以時，忠肝俱煎，義膽並裂，而迫被兇徒之驅逐，顛倒出門，死無其路，生亦何歸，相扶呼號，彷徨于闕外，聞御駕還宮，而闕門亦莫敢擅入，與黃允明遶宮而行止於泮邨（宮牆後門近處）回望宮闕，踴蹙靡騁，翌日晴後，砲響天起，天地晦塞，罔知攸措，繼乃知，即袁世凱吳兆有之義討兇黨也，頃之，聞有掖隸五六，屢駕出惠化門，向城北黃允明家云，故不勝驚喜，與從孫金應鉉及土人權櫛，隨往雙流洞，東朝坤殿，春宮先已駐駕矣，伏地涕泣，恭聞大駕請北廟，清兵護衛移駐于下部監，聖體太平，歡欣慶忭，而兇孽尙未盡殲，慈教以謂此地不可久留，於是上下俱變服，陪扈三殿宮，即夜到蘆花院上稷，是時天寒雪深，滿目荒涼，爲人臣者，心膽盡摧，死無餘地，逆亂禍變從古何限，而豈有如今日之滔天無極乎，幸賴祖宗之默佑，克殲其魁，餘皆逃散，二十日辛卯，移駐于覺心寺（原任將臣李景夏家也）二十四日乙未，奉大駕各殿宮，還御于昌德宮，實惟我東方無疆之休，翌年乙酉十二月二十一日臣與金圭錫，共侍中，坤聖殿下親筆寫下一片丹忠四字三本，教曰爾各受一本，一本爾其袖傳于黃允明問其病，以來（時允明調病在家）予知乃心是乃心，臣與圭錫承命怵惕無以仰答，謹惶恐百拜，退而記上之即昨二十二年乙酉十一月日崇祿大夫行知內侍府事金圭復謹書